『종교와 문화』 제29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5, pp. 125-151.

안셀무스의 『프로슬로기온』에 나타난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의 변증법

김 영 원*

Ⅰ. 서론
Ⅱ. 안셀무스의 삶, 명상, 기도
Ⅲ. 『프로슬로기온』에 나타난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의 변증법
Ⅳ. 결론

I. 서론

종교전통에 있어 교리에 관한 담론과 기도 혹은 명상수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 있어 대부분의 위대한 이론가들이 실질적인 기도수행 가운데 교리에 관한 담론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있어 교리 담론에 대한 연구는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 분야에서, 기도수행의 결과 탄생하는 기도담론에 관한 연구는 실천신학 혹은 영성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교리담론과 기도담론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통해 밝힌 경우는 거의 살펴볼 수 없다. 또한 종교학에 있어서도 텍스트의 실천적인 영역과 이론적인 영역 사이의 관계를 구체

* 서울대 강사, Ph.D.(Graduate Theological Union)

적으로 다루는 예는 드물다.

안셀무스(Anselmus)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안셀무스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는 신학적 모토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모토는 대표작인『프로슬로기온』(*Proslogion*)의 부제로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또한 철학자들은 이 책의 2장을 존재론적 신 존재증명의 원형으로 해석함으로써 안셀무스를 철학자로 이해했다.『프로슬로기온』은 분명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명백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들을 신앙적인 고백으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그 승화의 기제는 다름 아닌 기도담론이다. 다시 말해『프로슬로기온』에 담겨 있는 교리담론 혹은 철학적 주장은 기도와 명상을 기반으로 한 기도담론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기도담론 안에 담겨 승화된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은 다시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다.『프로슬로기온』 안에는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의 변증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의 변증법의 모습을 명확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첫째, 안셀무스의 삶의 맥락에서 기도와 명상의 개념을 밝힐 것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이『프로슬로기온』안의 교리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리담론과 기도담론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이 기존의 종교적 고전 텍스트 연구와 종교학 연구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Ⅱ. 안셀무스의 삶, 명상, 기도

안셀무스의 기도는 수도원의 삶과 맥락 안에서 형성되었다. 북 이탈리아의 아오스타(Aosta)에서 1033년 태어난 안셀무스는 1059년에 그 당시 이미 유명한 수도사이자 학자였던 랑프랑쿠스(LanFrancus)의 학

생이 되기 위해서 프랑스 노르망디에 위치한 베네딕트회 소속인 베크(Bec) 수도원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안셀무스는 1063년에 랑프랑쿠스를 이어 수도원장이 되고 그의 첫 번째 저작인『문법에 관하여』(*De Grammatico*)를 발표한 후 최소한 약 7년간 명상, 기도, 그리고 젊은 수도사들을 가르치는 데에 몰두했다.[2)]

이후 1070-1075에 걸쳐 안셀무스는 자신의 기도와 명상을 담은 글들을 출간했다. 이 기도문들과 명상의 글들은 개인적인 기도와 명상을 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안셀무스는 이 글들을 주위에 있는 다른 수도사들을 위한 기도와 명상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썼다. 다시 말해, 그의 기도문과 명상의 글들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베크 수도원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수행한 기도와 명상의 결과물이었다. 이후에 이 글들은『기도와 명상』(*Prayers and Meditations*)이라는 책으로 묶여졌다. 따라서 안셀무스의 삶의 전반부는 기도와 명상을 동반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안셀무스의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1090년대 이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평가는 이 논문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다.[3)]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안셀무스의 삶의 전반을 특징짓는 기도담론[4)]의 배경과 특징에 집중할 것이다.

---

2) Richard W. Southern, *Saint Anselm, A Portrait in a Landsca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67.

3) 리차드 서던 외에 안셀무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참조할만한 서적으로는 Sister Benedicta Ward, *Anselm of Canterbury: His Life and Legacy* (London: SPCK, 2009)가 있다. 그리고 베크(Bec) 수도원 시기 이후의 안셀무스의 삶에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Sally M. Vaughn, "St. Anselm: Reluctant Archbishop?," *Albion* vol.6, 1974, 240-250 혹은 Sally N. Vaughn, *Archbishop Anselm 1093-1109: Bec Missionary, Canterbury Primate, Patriarch of Another World* (Farnham: Ashgate, 2012)를 참조하라.

4) 엄밀하게 말해서『프로슬로기온』에 나오는 기도는 직접적인 기도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수행 중에 정형화된 언어들을 정돈된 글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프로슬로기온』의 기도는 기도의행위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글로 고착화되었다는 점에서 기도행위와 구분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도수행과『프로슬로기온』의 기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도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의 배경과 개괄적 특징

먼저 안셀무스의 『기도와 명상』을 번역한 베네딕타 워드(Benedicta Ward)는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의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 번째 배경은 예전(liturgy)과 성자들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preces privatae)이다. 그의 『기도와 명상』은 베크 수도원에서 쓰여졌고, 베크 수도원의 생활은 분명 베네딕트의 규칙(Benedictine Rule)에 따른 삶이었다. 따라서 안셀무스는 분명 이 규칙에 따라 시간에 맞추어 예전적 기도를 했을 것이다. 베크 수도원과 같이 베네딕트 전통에 서 있는 수도원에서의 수도사들의 일과는 철야기도 (Vigilis 새벽 3시경), 찬과 (讚課 Lauds 하루의 시작), 일시과 (一時課, Prime 하루 일과의 시작), 삼시과 (三時課, Terce 오전중반), 육시과 (六時課, Sext 정오), 구시과 (九時課, None 오후중반), 만과 (晩課, Vespers 하루 일과 후 저녁이 찾아오는 때), 종과 (終課, Compline 날이 저물고 잠자리에 드는 때)를 철저히 지키는 예전과 기도수행으로 채워진다.[5] 즉 수도원 안에서의 시편을 기초로 한 예전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의 핵심적인 배경의 하나이다.

그러나 안셀무스의 기도는 결코 공동체를 위한 기도만은 아니었다. 물론 그의 기도 중에는 분명히 공동체와 예전을 위한 기도,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기 전의 기도(Prayer before Receiving the Body and Blood of Christ)"와 같이 명백히 성찬예전을 배경으로 한 기도문[6]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Prayer to God)"와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Prayer to Christ)"와 같이 분명히 개인적인 기도도 존재한다.[7] 9세기부터 발달되어 온 개인적인 기도가 안셀무스가

---

5) Sister Benedicta Ward, "Introduction" to Anselm, *The Prayers and Meditations of St. Anselm with the Proslogion,* trans. Benedicta Ward (New York: Penguin Books, 1973), 27-28.

6) Ward, "Introduction," 30.

활동한 11세기에 와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문들을 원했기 때문에 안셀무스도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8] 워드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예전과 개인적인 기도를 안셀무스가 의식적으로 본받으려고 한 모본이었다기보다는 그의 정신적 분위기에 영향을 준 무의식적인 배경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9]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배경인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가 더욱 중요하다. 안셀무스의 시대에는 기도와 명상이 거의 동일시되었다. 특히 요즈음 개신교 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렉티오 디비나를 안셀무스와 그 이전의 교부들은 기도와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워드에 따르면 이들에게 기도와 렉티오 디비나는 동일한 행위의 다른 면들일 뿐이었다.[10] 더 나아가 안셀무스와 이전의 교부들은 기도와 교리담론도 동일한 것이었다. 키프리아누스(Cyprianus)과 오리게누스(Origenus)과 같은 교부들의 교리담론은 "고대적인 의미에서 찬송, 기도, 즉 그들의 지식과 사랑이 찬양이 되는 지점이었다."[11] 다시 말해 교부들에게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발전시킨 자신들의 교리담론이 지향하는 바는 결코 교리를 논리적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 자신들의 신학을 발전시켰고 그들의 신학 작품들에 담긴 교리담론은 자연스럽게 렉티오 디비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교리담론을 읽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교부들이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 경험하고 도달했던 신비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교리담론은 신학적인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의 출발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교부들과 안셀무스에게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은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 신을 향한 하나의 일관된

---

7) Ward, "Introduction," 32.

8) Sister Benedicta Ward, "Appendix: The Development of Prayers," to *The Prayers and Meditations of St. Anselm,* 275.

9) Ward, "Introduction," 43.

10) Ward, "Introduction," 43.

11) Ward, "Introduction," 44.

변증법적 흐름 안에 위치하게 된다.

R. W. 서던(Richard W. Southern)에 따르면 안셀무스의 렉티오 디비나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12] 첫 번째 자료는 성경이다. 그의 성경사용은 동시대의 다른 인물들과 달랐다. 동시대에 인물들은 기도와 명상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는 데에 성경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성경구절들을 늘어놓는 데에 그쳤으며, 성경 연구의 주된 목적도 서로 상반되는 성경의 개념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13] 그러나 안셀무스는 성경말씀을 단순한 인용이나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명상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명상을 통하여 성경말씀들을 마음속에서 소화시키고 체화하였으며, 이렇게 체화된 말씀을 자신의 기도문과 명상의 글에 자유롭게 사용하였다.[14] 이러한 이유로 그의 작품에는 성경말씀이 온전한 형태로 직접 인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자료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이다. R. A. 헤레라는 안셀무스는 "그 시대의 작은 어거스틴"이라고까지 평가했다.[15]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안셀무스에게 기도담론의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도수행의 방식을 제공하였다. 서던은 안셀무스가 베네딕트 전통의 예전적 기도수행을 넘어서서 개인적이고, 열정적이며, 지적인 기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준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이라고 본다.[16]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는 지각(cogitation), 명상(meditation), 그리고 관상(contemplation)을 통해서 신의 실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17] 또한 이 과정은 외부적 세계를 통해

12) 안셀무스의 렉티오 디비나의 자료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Young Won Kim, "Trial of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Anselm's *Proslogion* and the Renewal of Discourse between *Analogia Entis* and *Analogia Fidei*" (PhD Diss., Graduate Theological Union, 2012), 18-21을 참조하라.

13) Southern, *Saint Anselm,* 70.

14) Southern, *Saint Anselm,* 70-71.

15) R.A. Herrera, *Anselm's Proslogion: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9) 1.

16) Southern, *Saint Anselm,* 77.

서도 일어나지만 주로 지성을 통한 내부적인 관상을 통하여 진행된다. 우리는 이렇게 내부적인 관찰의 특징을 가지는 명상을 심리적 삼위일체론을 전개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에 관하여』(*De Trinitate*)와 『고백록』(*Confession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에 대해 서던은 약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본다.[18] 첫째, 그의 기도와 명상은 매우 개인적이며 문학적으로 뛰어나다.[19] 10-11세기의 기도문들은 대체로 공동 기도문들로서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많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도문 모음집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단일한 하나의 문학으로 여겨질 만큼 개별성을 띠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과 안셀무스 스스로의 렉티오 디비나를 통한 자료의 소화력과 표현력 덕분에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은 공동 기도문의 성격을 뛰어넘어 개인적이고 열정적인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시편을 편집한 수준을 넘어서서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독립적인 작품들이 되었다.

둘째, 그의 기도와 명상은 탄탄한 신학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20] 이후에 안셀무스의 기도의 단계에 대한 분석과『프로슬로기온』해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의 기도와 명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영혼과 그 영혼이 갈망하는 신의 영광 사이의 대비이다. 물론 이 당시의 다른 기도문들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다른 기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신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대비하면서 인간의 신을 향한 갈구를 표현하고 이미지화하고 있다. 그 결과 그의 기도에는 그의 인간론, 신론, 그리고 구원론이 시적인 형태로 녹아 있다.

위의 두 가지의 기도의 특징은 세 번째 특징을 드러낸다.[21] 그의 기

17) Southern, *Saint Anselm,* 77-78.

18) Sister Benedicta Ward, "Foreword" to Anselm, *The Prayers and Meditations of St. Anselm with the Proslogion,* pp. 9-15.

19) Ward, "Foreword," 10.

20) Ward, "Foreword," 10-11.

도담론은 교리 담론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도담론 자체가 교리담론을 함축하고 교리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담론의 발전은 교리담론에 대한 탐구를 필수적인 단계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의 분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의 기도담론의 형태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2.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의 형태와 내용

워드에 따르면 안셀무스는 기도에 대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글을 쓴 적은 없지만 앞서서 제시한 배경들 가운데 탄생한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에는 분명한 형태와 내용적 특징이 있다고 본다.[22] 워드는 그 유형과 단계를 다음의 네 가지-"나의 골방으로(In cubiculum meum)," "마음을 진동시킴(Exita mentem)," "심령의 회개(Compunctio cordis)," 그리고 "하늘에서(In caelis)"-로 설명한다.[23]

먼저 "나의 골방으로"는 기도자가 일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고독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고독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중세 수도원 전통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안셀무스의 기도와 명상이 예전에서 공동 기도문으로 사용되도록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조용히 읊조리는 렉티오 디비나를 위한 자료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24] 이러한 특징은 그 당시 공동체적인 예전을 중시했던 중세 수도원 전통보다 사막의 교부들에 가깝다.[25]

이렇게 고독의 상태로 나아간 후 기도자는 본격적인 기도를 위해서 "마음을 진동시키는" 단계로 진행한다.[26] 고독의 단계가 기도를 시작하

---

21) Ward, "Foreword," 11-12.

22) Ward, "Introduction," 51.

23) Ward, "Introduction," 51-59.

24) Ward, "Introduction," 51-52.

25) Ward, "Introduction," 52.

기 위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면 마음을 진동시키는 것은 본격적인 기도의 문턱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고독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 인간의 영혼은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 가능한 스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도의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에 전통적으로 훈련되고 사용되는 인간의 기관은 의지(will)이다.[27] 이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형상이 파괴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기도자는 직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상태의 자각을 통해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마음을 진동시키는 과정이다. 안셀무스의 경우 의지뿐만 아니라 지성, 감정, 상상력을 모두 사용하여 이 과정을 진행한다.[28]

이 두 단계만을 볼 때에 안셀무스의 기도의 개념은 매우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셀무스의 기도의 배경 중 하나가 공동기도의 예전이 중시되는 11세기의 수도원 문화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안셀무스가 베크 수도원에서 발전시킨 우정의 개념을 살펴볼 때에 안셀무스의 기도가 대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측면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던은 다른 친구 수사들과의 우정과 대화는 안셀무스에게 있어 베크 수도원의 공식적인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글쓰기에 있어서 지속적인 자료와 동기부여가 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29] 『기도와 명상』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모놀리기온』(*Monologion*)과 관련하여 동료 수도사들과의 우정의 역할은 더욱 분명하다. 『모놀로기온』 서

---

26) Ward, “Introduction,” 52-53.

27) Ward, “Introduction,” 53.

28) Ward, “Introduction,” 54.

29) Richard W. Southern, "The Relationship between Anselm's Thought and his Life at Bec and Canterbury," in *Saint Anselm: a Thinker for Yesterday and Today*, ed. Coloman Viola and Frederick Van Fleteren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2), 17.

문에서 안셀무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몇 몇 형제들이 자주 나에게 신의 본질을 명상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종류의 명상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 내가 그들과 자주 토론했던 것들을 명상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글로 남길 것을 매우 진지하게 청했다."[30] 그렇다면, 안셀무스는 베크 수도원 안에서 어떤 종류의 우정을 발견하고 발전시켰는가?

안셀무스 당시에는 세속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원 안에서도 우정은 목적 지향적 관계를 의미했다. 특히 수도원 안에서의 우정의 핵심은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수도사들을 수도원의 공통된 목표에 헌신하도록 고안된 규칙이었다.[31] 그러나 안셀무스의 우정은 언어, 개념, 그리고 목적에 있어 그 당시의 통상적인 우정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서던(Southern)은 1071-1087년 사이, 즉 『기도와 명상』을 집필했던 시기의 안셀무스의 언어가 12세기 후반 낭만적 사랑의 언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32] 예를 들어, 길버트 크리스핀(Gilbert Crispin)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 지를 글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는 너와 함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한번, 얼굴에 얼굴을, 입술에 입술을, 얼싸안음에 얼싸안음을, 우리의 망각되지 않는 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33]라고 썼다. 이렇듯, 우정에 관한 안셀무스의 언어는 목적 지향적이고 공적이라기보다는 대화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사적인 연애편지처럼 보이는 그의 언어는 몇 몇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셀무스에게 있어 진정한 우정은 물리적인 현존이 아니라 영혼의 정신적 유대에 있다.[34]

---

30) *Monol.* Prologus.

31) Southern, *Saint Anselm*, 142.

32) Southern, *Saint Anselm*, 146.

33) Anselm *Epistola* 130 (ii, 26); Anselm, *The Letters of Saint Anselm of Canterbury*, vol. 1. trans. Walter Frölich, Kalamazoo (Mich.: Cistercian Publications, 1990), 305.

맥과이어(Brian Patrick McGuire)는 안셀무스가 가까운 친구들의 현존을 자신의 마음으로의 내적 여행 안에서 찾으려 했으며, 그곳에서 그 친구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35] 더 나아가 친구들과의 우정은 두 영혼이 개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가 될 때에 완성되며, 이 영혼들의 하나됨은 그 영혼들의 신과의 하나됨 안에서 정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36] 따라서, 위의 우정의 언어들은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베크 수도원 안과 밖에서 동일한 수행의 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수도자들 간의 "영혼들의 융합" 혹은 "신 안에서의 영원한 하나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7]

이러한 우정의 관점에서, 안셀무스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맥락에 위치지워진다. 더 나아가 맥과이어는 우정 안에서의 명상과 교리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영혼의 융합과 각각의 영혼들의 신과의 하나됨은 안셀무스 신학의 원리라고 주장한다.[38] 안셀무스가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이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고대의 신학적 전통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그의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은 수도원 안에서의 영적인 여행 공동체라는 이미지 안에 함께 놓여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안셀무스가 영혼의 융합 혹은 하나됨을 단순히 상상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로 보지 않고 "가장 낮고 어두운 존재함으로부터 신의 존재로 올라가는 존재의 계단에 있는 영적 실체(entity)"[39]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셀무스의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은 수도원적 우정

34) Adele M. Fiske, "Saint Anselm and Friendship," *Studia Ministica* III, 1961, 276.

35) Brian Patrick McGuire, *Friendship & Community: The Monastic Experience 350-1250* (Kalamazoo, Mich.: Cistern Publications, 1988), 214-215; *Ep.* 434.

36) McGuire, *Friendship & Community,* 271.

37) Southern, *Saint Anselm,* 147.

38) McGuire, *Friendship & Community,* 155.

39) McGuire, *Friendship & Community,* 157; Fiske, "Saint Anselm and Friendship," 271.

안에서 궁극적 기원인 신에로 나아가는 내적인 여행의 이미지 안으로 통합된다. 다시 말해,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은 수도원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안셀무스는 공동체적인 내적 여행의 이미지를 수도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까지 확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안셀무스는 기도수행과 교리담론의 변증법이 빚어내는 수도원적 삶을 인류의 공동체와 기관들을 위한 지상의 모델로 간주했다.[40] 세속적 공동체들이 수도원적 비전에 반(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관들을 용인하고 정당화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명상적 가능성과 목표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영향 하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수도원적 모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러한 신을 향한 공동체적인 내적 여행으로 형상화되는 수도원적 우정의 맥락 하에서 안셀무스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까지 나아가게 된다. 안셀무스 기도수행의 공적인 차원은 더 많은 논의는 이 글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41]

세 번째 단계인 "심령의 회개(Compunctio cordis),"를 살펴보자. 워드는 안셀무스의 기도에 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회개의 개념에 있다고 본다.[42] 안셀무스의 기도를 읽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상과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실제 상황"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43] 그러나 안셀무스의 회개는 단순히 일시적인 슬픔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지향한다.[44]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러한 특징을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40) McGuire, *Friendship & Community,* 164.

41) 안셀무스 기도담론에 있어 우정의 역할과 공적인 차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Kim, "Trial of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11-18을 참조하라.

42) Ward, "introduction," 53.

43) Ward, "introduction," 54.

44) Ward, "introduction," 55.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아버지, 나의 선한 주인이시여
나에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견디고 극복하게 하소서
모든 덫들과 유혹들과 해로운 쾌락들을[45]

이와 같이 안셀무스의 기도 안에서 개인의 회개는 전능하신 신과 죄인인 자신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거리에 대한 교리적 담론에 기초한다. 즉 교리적 담론에 대한 이해가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를 촉발시킨다. 또한 이러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구를 불러일으킨다..

나의 말과 행동에서 완전히 멀리하게 하소서
무엇이든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행하고 지키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서
....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들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실행하게 하소서.[46]

이렇게 "심령의 회개(Compunctio cordis),"의 단계에도 우리는 교리담론과 기도담론 사이의 변증법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다.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교리적인 인식에 기초한 수행이다.

워드가 제시하는 안셀무스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하늘에서(In caelis)"이다.[47] 기도담론은 회개를 통한 눈물과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슬픔과 회개의 눈물은 기도 가운데에서 은혜

45) Anselm, *The Prayers and Meditations*, 91.
46) Anselm, *The Prayers and Meditations*, 91.
47) Ward, "Introduction," 56.

안에서의 특별히 천국에서의 기쁨과 사랑의 눈물로 변화된다. 즉 안셀무스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만끽하는 신과의 연합 안에서의 기쁨과 천국에서 느끼게 될 완전한 합일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기도담론이 이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은 개인의 열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명백히 종말에 대한 교리적인 담론의 가르침이라는 점이다. 환언하면 기도담론 안에서 종말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종말에 대한 기쁨의 기도와 찬양으로 변증법적 고양의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셀무스의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안셀무스의 기도의 네 단계들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충분히 보여 주는 글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와 명상』에 있지 않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프로슬로기온』이다. 특별히 『프로슬로기온』에서는 『기도와 명상』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의 변증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Ⅲ. 『프로슬로기온』에 나타난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의 변증법

『프로슬로기온』은 전체 26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중 2장에서 4장, 특히 2장은 존재론적 증명으로 불리워지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슬로기온』은 신학적 혹은 종교철학적인 성격을 가진 책으로 여겨져 명백한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1장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짧은 분석에서는 1장이 『프로슬로기온』 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프로슬로기온』의 교리담론이 이 기도담론의 맥락 안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간략하게 보게 될 것이다.

1. “나의 골방으로,”“마음을 진동시킴,”그리고 “심령의 회개”

프로슬로기온(proslogion)의 뜻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이다.『프로슬로기온』 1장의 첫 문단에서 기도자는 기도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오라 무가치한 유한자여! 네 관심들을 잠시 뒤로 물려 놓고, 쉼 없는 너의 생각으로부터 잠깐 물러나라. 너의 짐들과 염려들을 떨쳐 버리라! 네 일과 고역을 제쳐 두라.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분 안에서 쉬라. 네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서(마 6:6),”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문을 닫고 “닫힌 문 뒤에서(마 6:6)” 그를 찾으라.[48]

안셀무스의 다른 기도문들에서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고독으로 나아가는 “나의 골방으로”의 단계가 기도문 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프로슬로기온』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안셀무스의 기도들이 고독의 단계를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고독의 단계가 사막의 교부들이나 다른 수련의 전통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독의 단계로 들어간 후 이제 “마음을 진동시킴”의 단계로 나아간다. 앞에서 밝혔듯이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은 기도의 준비단계이지 목적은 아니다. 사실 1장은 첫 문단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문단까지 마음을 진동시키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신의 높고 위대하심과 기도자의 비참한 상황을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신

---

48) Anselm *Proslogion* I;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with the Replies of Gaunilo and Anselm*, trans. Thomas William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5), 97.

께로 나아가야 함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특징적인 점은 성경구절들을 특히 시편을 부분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신과 인간 사이의 대비를 형성해 간다는 점이다.

> 당신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졸이며, "당신의 얼굴로부터 멀리 내던져진 (시편 51:11)"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 그는 당신을 보려고 헐떡이지만
> 당신의 얼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그는 당신께 가려고 갈망하지만
> 당신의 처소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 .....(중략)
>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지만
> 저는 한 번도 당신을 뵙지 못했습니다.
> 당신께서 저를 창조하셨고, 또 새롭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것들도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이지만
> 아직도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 더욱이 저는 당신을 뵈옵도록 창조되었지만
> 저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창조된 것을 아직도 하지 못했습니다.[49]

이러한 대비는 크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이는『프로슬로기온』의 기도가 베크 수도원의 예전적인 기도와 그의 개인적인 렉티오 디비나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위 인용문에서 안셀무스는 시편 50편에 근거한 자신의 묵상을 예전적인 기도의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또한 이 묵상은 단순히 성경말씀에 대한 묵상뿐만 아니라 교리담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이로 인한 인간과 신 사이의 질적인 차이에 관한 교리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 기도문은 작성되었다. 환언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리담론이 마음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도의 단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신을 찾으려 마음을 진동시킨 후에 다음과 같이 스스로의 처지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심령의 단계"로 나아간다.

---

49) *Prosl.* I;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97.

> 오 주님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안에 이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셔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나의 부덕들로 인하여 너무 파괴되고 내 죄악의 연기로 인해 가려져서 당신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만드시지 않는다면 이 형상은 창조된 목적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높음을 측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지성은 그것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50]

안셀무스의 회개의 기도는 회개에만 머무르지 않고 2장에서 4장에 걸쳐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교리담론으로 발전한다. 환언하면 2장에서 4장에 있는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담론은 1장의 회개의 기도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1장의 마음의 진동과 회개의 기도가 인간과 신 사이의 질적인 차이에 대한 교리담론에 대한 이해로부터 촉발되었다면 2장에서 4장 사이의 철학적 교리담론은 1장의 '마음의 진동'과 '회개의 기도'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1장과 2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2장의 내용은 필자가 다른 글[51]에서 이미 분석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명백한 철학적 교리담론의 첫 번째 단락인 4장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안셀무스는 4장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한다.

> 감사합니다. 나의 선하신 주인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일전에 당신의 은혜로 믿었던 것을 이제 나는 당신의 조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52]

4장의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는 결과는 기도로 인해 촉발된 교리담론의 개진한 결과 기도자의 이성이 도달하게 된 지성의 단계를 지시한다.

---

50) *Prosl.* I;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99.

51) 김영원,「안셀무스의『모놀로기온』(Monologion) : 신앙유비(analogia fidei)와 존재유비(analogia entis)」,『한국기독교 신학논총』91(1) (2014), 141-143.

52) *Prosl.* IV;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101.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셀무스의 통회하는 심정으로부터 촉발된 신을 더욱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은 신의 은혜와 계시 안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탐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얻어진 교리적 담론을 안셀무스는 기도자의 음성을 빌어 기도하고 있다. 기도담론이 교리담론으로 나아가고 교리담론이 다시 기도담론으로 승화되고 있다.

5장부터 14장까지는 4장 마지막의 기도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신의 속성에 대한 교리담론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분석으로 나아간다. 신의 전능함, 정의로움, 영원성 등에 대해 철저한 교리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나 14장 마지막에는 다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등장한다.

> 왜 이렇습니까 주님.
> 왜 이렇습니까?
> 내 영혼의 눈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어두워지나이까?
> 아니면 당신의 광채로 눈이 부신 겁니까?
> .....(중략)
> 얼마나 큰 순수함, 단순함, 확실함과 광채가 거기 있나이까?
> 확실히 이러한 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를 훨씬 능가합니다.[53]

5장부터 14장까지의 엄격하고 논리적인 교리적 탐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도 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탄식의 기도가 등장한다. 교리담론이 더욱 깊은 차원의 "마음을 진동시킴"의 단계를 이끌어 내었다. 기도담론으로 인해 발전된 교리담론이 다시 기도담론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다시 이 기도담론은 또 다시 더욱 높은 차원의 교리담론의 추구를 촉발시킨다. 그래서 23장에 이르러서는 교리담론의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논구로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다

---

53) *Prosl.* XIIII;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109.

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담론은 24장에서 창조주인 신에 대한 찬양의 기도로 발전된다.

> 창조된 생명이 좋은 것이라면
> 창조주의 생명은 얼마나 좋을까?
> 만들어진 평안이 유쾌하다면
> 모든 평안을 만드는 평안은 얼마나 유쾌할까?
> 창조된 사물들에 대한 지식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면
>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는 지혜는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 마침내 즐겁게 해주는 사물들 안에 있는 즐거움이 많고도 크다면
> 그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만든 분 안에는 어떤 종류와 크기의 기쁨이 있을까?[54]

이 지점에서『프로슬로기온』의 기도담론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도가 마음의 진동과 탄식, 그리고 회개에 머물렀다면, 24장의 기도는 신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기쁨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다. 이는 분명 교리담론과 기도담론의 변증법 속에서 교리담론만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기도담론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기쁨(gaudium)이라는 새로운 기도담론의 차원은 또다시 교리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담론을 촉발시킨다. 기쁨이라는 새로운 차원 안에서의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의 변증법은『프로슬로기온』의 결론 부분인 25장과 26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 “in caelis”: 25장과 26장

25장에서 안셀무스는 기도담론으로부터 새롭게 촉발된 교리담론의 궁극적 단계를 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표현한다. 신은 선함(bonus)이시므로 신을 알아가는 것은 선함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함

54) *Prosl.* XXIV;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114.

을 알아간다는 것은 선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선함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 25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의 선함을 알아감에 대한 이 땅에서의 기쁨이다. 25장에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아름다움, 강함, 순수한 즐거움, 지혜 등등) 열거하면서 이 모든 덕목들의 궁극적인 기원이 신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밝힌다.[55]

26장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안셀무스의 기도의 마지막 차원인 "하늘에서"로 나아간다. 그는 이 세상에서 신을 알아감과 그 안에서의 기쁨이 결코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천국에서의 충만한 기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 오 하나님 저는 제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것을 이 삶에서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제 기쁨이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일 제가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의 당신에 대한 나의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이 지식들이 완전하게 하소서.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완전하게 하셔서 이곳에서의 나의 기쁨이 희망 안에서 위대하게 하시며, 그곳에서의 기쁨은 실재 안에서 완전하게 하소서.[56]

신학적인 사고와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 안에서 안셀무스는 인간과 신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 차이 가운데에서 안셀무스는 자신이 기도와 교리담론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과, 맛보게 된 기쁨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천국에서 온전해진다는 비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기원으로 『프로슬로기온』을 마친다.

> 진리의 하나님
> 나는 받기를 기원합니다
>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라는 (약속을)
> 그 동안에는 내 마음이 그것을 명상하게 하소서

---

55) *Prosl.* XXV;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115-116.

56) *Prosl.* XXVI;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117.

내 입술이 그것을 말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그것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입이 그것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 육체가 그것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소서
그리고 내 전 존재가 그것을 바라게 하소서
내가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기까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히 축복받으소서. 아멘[57]

이 마지막 기도에서도 우리는 그의 기도가 다시 교리담론으로 이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프로슬로기온』안에서 계속해서 기도담론이 교리담론으로 이어지고 교리담론이 기도의 내용됨으로써 다시 그 담론이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의 기도담론이 계속해서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선포하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리담론의 시발점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안셀무스의『기도와 명상』그리고『프로슬로기온』을 통해서 안셀무스의 기도담론과 교리담론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안셀무스의 기도담론은 베네딕트 수도원의 예전적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렉티오 디비나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이 이 글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렉티오 디비나 안에서 그의 기도는 항상 교리담론과의 관계성 안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그의 기도는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서 교리담론을 품게 되고 또한 이 교리담론은 그의 기도담론 안에서 다시 기도의 자료가 되며, 이 기도담론 안에서 교리담론은 다시 더 높은 교리담론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57) *Prosl.* XXVI;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117. 괄호 속은 필자의 첨언이다.

우리는『프로슬로기온』분석을 통해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는 안셀무스의 삶 속에서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이 호혜적인 변증법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이다.

안셀무스에게 기도담론과 교리담론이 호혜적인 변증법을 가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하나의 종교 담론을 연구함에 있어 실천적인 영역과 이론적인 영역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여는 사실 근대적인 학문체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근대적인 종교학 체계 안에서는 실천적인 영역(기도, 의례, 예전 등)과 이론적인 영역(경전과 교리 등)이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고전적인 종교적 텍스트들이 형성될 시기에는 안셀무스의 경우와 같이 이 둘은 삶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실체였다. 따라서 고전적인 종교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실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 관계성에 대한 분석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안셀무스의 삶이 이론과 실천이 조화롭게 변증법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켰으며 이 변증법적인 상승이 텍스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은 현대의 종교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실 종교적 텍스트를 연구하고 이해는 일은 단순히 학문적인 분석에만 머물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종교학적 담론이 우리 삶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을 제시해 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 학문적 체계 안에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학문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목적 중에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 텍스트와 삶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이 글과 같이『프로슬로기온』의 내용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도 있지만 문학적 형식의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볼 때에 더욱 잘 드러나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안셀무스, 프로슬로기온, 기도담론, 교리담론

원고접수일: 2015년 11월 16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5일

참고문헌

김영원. 「안셀무스의 『모놀로기온』(Monologion): 신앙유비(analogia fidei)와 존재유비(analogia entis)」.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91(1) (2014): 131-158.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모놀로기온 & 프로슬로기온』. 박승효 옮김. 서울: 아카넷, 2002.

Anselmus. *Meditationes*.

_____. *Monologion*.

_____. *Proslogion.*

_____. *Anselm*: *Monologion* and *Proslogion with the replies of Gaunilo and Anselm.* trans. Thomas Williams.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5.

_____. *The Letters of Saint Anselm of Canterbury.* trans. Walter Frölich. vol. 1. Kalamazoo, Mich.: Cistercian Publications, 1990.

_____. *The Prayers and Meditations of St. Anselm with the Proslogion.* trans. Benedicta Ward. New York: Penguin Books, 1973.

Fiske, Adele M. "Saint Anselm and Friendship." *Studia Monistica* III (1961): 254-282.

Herrera, R.A. *Anselm's Proslogion: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9.

Kim, Young Won. "Trial of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Anselm's *Proslogion* and the Renewal of Discourse between *Analogia Entis* and *Analogia Fidei*." PhD Diss. Graduate Theological Union, 2012.

McGuire, Brian Patrick. *Friendship & Community: The Monastic Experience 350-1250.* Kalamazoo, Mich.: Cistern

Publications, 1988.

Southern, Richard W. "The Relationship between Anselm's Thought and His Life at Bec and Canterbury." In *Saint Anselm: a Thinker for Yesterday and Today*. edit. Coloman Viola and Frederick Van Fleteren.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2.

_____. *Saint Anselm: A Portrait in Landsca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_____. *Saint Anselm and His Biograp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Vaughn, Sally M. "St. Anselm: Reluctant Archbishop?." *Albion* 6 (fall 1974): 240-250.

_____. *Archbishop Anselm 1093-1109: Bec Missionary, Canterbury Primate, Patriarch of Another World.* Farnham: Ashgate, 2012.

Ward, Benedicta. *Anselm of Canterbury: His Life and Legacy.* London: SPCK, 2009.

Abstract

The Dialectic of Prayer Discourse and Doctrinal Discourse within Anselm's Proslogion

Young Wo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dialectic of prayer discourse and doctrinal discourse within Anselm's *Proslogion*. As a matter of fact, these different kinds of discourse have not been dealt with together in the sense that only doctrinal and philosophical discourses of Proslogion II-IV were the focus of limelight in the academic realm.

From the perspective of Anselm's life as a monk in Bec, however, we need to analyze doctrinal and philosophical discourses within the *Proslogion* in a necessary relationship with prayer discourse since he wrote the *Proslogion* within the context of monastic life, in which prayer discourse and doctrinal discourse were not systematically separated yet. Furthermore, the prayer discourses especially in Proslogion I, the end of IV, XIV, and XXIV showed that doctrinal discourses within the *Proslogion* were sublated to a higher level through these prayer discourses. Thus, in order to interpret the *Proslogion* properly, we need to seriously consider the dialectic of prayer discourse and doctrinal discourse in the future studies.

This insight from the analysis of the *Proslogion* urges us to reconsider the way of dealing with religious classical texts in two respects. First, we need to develop a holistic approach which includes their practical and theoretical aspects. Second, we need to find a meaningful message from these texts in order to enlighten the barren modern minds.

Key words: Anselm of Canterbury, *Proslogion*, Prayer Discourse, Doctrinal Discourse